

文香이 흐르는 문화관을 찾아서



지난 2012년 전주시 덕진구에 개관한 전북문학관에는 고전문학을 비롯해 전북을 배경으로 창작된 다양한 작품과 지역 출신 문인에 대한 자료들이 전시돼 있다.

‘정읍사’·‘춘향전’·‘흥부전’... 고전문학 태동의 중심지

<21> 전북문학관

전북외국인학교 리모델링 2012년 문학공간으로 개관 고전문학·일제암흑기·새천년 해오름 등 상설전시공간 전북 중심 문인·작품 전시... 진행프로그램 책자로 제작 창작·교육의 장·주민 참여 추진 등 문학관 활성화 노력



문학관에 비치된 다양한 문학 관련 책자들

‘정읍사’, ‘서동요’, ‘상춘곡’, ‘춘향전’, ‘흥부전’, ‘만복사저포기’... 이들 작품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탄생한 문학작품이라는 것이다. 물론 고전문학이라는 유사점도 있다. 그렇다면 다음에 열거한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유엽, 김환태, 서정주, 이병기, 채만식, 김해강, 신석정, 이근영, 최명희... 이들 또한 전라북도가 낳은 내로라하는 문인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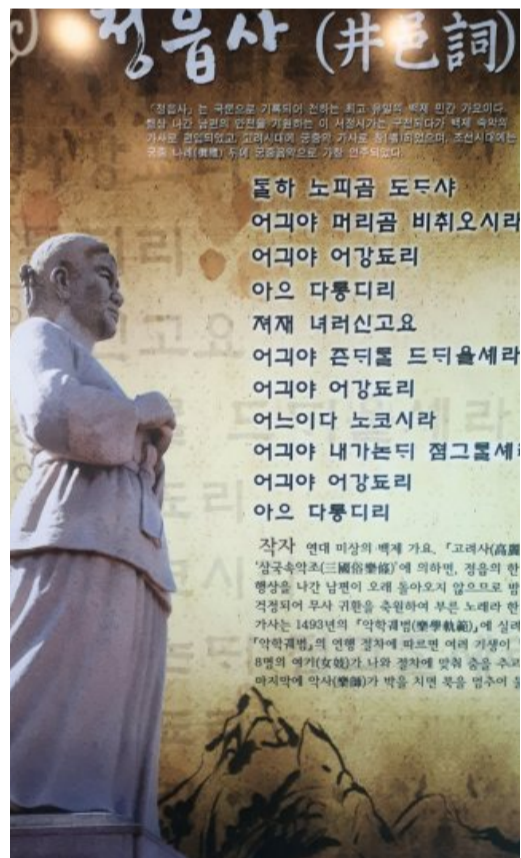
그러나 문학에 어느 정도 관심 있는 이들이 앞서 언급한 고전문학의 창작 공간에 대해 알지 못한다. 어느 고장을 배경으로 작품이 쓰이고 전래됐는지 문학적 맥락을 알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 고전문학의 상당수 작품은 전북이라는 지역을 근거로 한다. 전라도의 한 축을 담당했던 전북 문화의 힘이 바로 문학에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전북문학관은 지난 2012년 전주시 덕진구에 개관했다. 문학관이 들어서기까지의 과정은 지난했

되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그리고 미국 팝 가수 마이클 잭슨이 방문한 바 있다. 문학관에는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치된 방탄유리 및 경호 시설 등이 보존되어 있으며 은복서, 마로니에, 계수나무 등 희귀 수종이 관내 정원에 식재되어 있다. 건물의 내력을 알고 나자 왜 70-80년대 분위기가 배어나오는지 비로소 이해가 된다. 현재 문학관은 전북문인협회가 전북도로부터 수탁을 해 운영하고 있다. 당초 문학관은 2010년 전북도의회 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을 계기로 구체화했다. 도지사 공관이었던 이곳을 리모델링해 문학공간으로 조성한 것이다.

대로 회귀한 듯한 착각을 준다. 행상을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백제 여인의 애담은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온다. 서동요와 선화공주의 만남을 모티브로 하는 ‘서동요’는 백제 무왕과 관련이 있다. 소년시절 서동이 신라의 선화공주를 짝사랑한 나머지 지어 불렀다는 노래는 사랑과 운명의 힘을 떠오르게 한다. 민요적 성격으로 보아 구체적인 창작자를 알 수 없지만 당시 민초들이 공동 제작해 불렀을 것으로 보인다.



전시관에 비치된 ‘춘향전’ (왼쪽)과 ‘정읍사’에 대한 내용



봄이 오는가 싶더니 언제인가 싶게 4월로 접어들었다. 조금만 지나면 또 여름이 성큼 다가올 것이다. 코로나 탓에 문화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적잖이 조심스럽지만 취재를 위해 마음을 다잡고 떠났다. 그렇게 한 시간여를 내달려 전주에 도착했다. 언제 와도 전주(全州)는 옛스러운 맛이 넘치는 고장이다. 온고을이라는 지명은 사람의 마음을 넉넉하게 한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다는 뜻은 이편의 마음까지 풍요로움을 준다.

아마도 새로 건립을 했다면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싶다. 문학관 운영 방향은 어느 곳과 별반 다르지 않다. 조금 차별화된 것이 있다면 전시와 출판 등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매년 문학관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을 책자로 만들어내는데 시낭송집, 백일장, 강연집 등이 그렇게 발간된다. 미술, 사진, 연극,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도 펼쳐진다.

정극인의 문집 ‘불우헌집’에 전하는 ‘상춘곡’은 저자가 퇴직 후 고향 태인에 돌아와 지은 가사다. 서사와 춘경, 상춘, 결사 등 네 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연의 아름다움과 안빈낙도를 주제로 한다. 시문과 거문고에 탁월했던 부안 출신 이매창의 자료도 전시돼 있다. 당대 문사인 허균, 유희경 등과 교류를 했으며 개성의 황진이와 더불어 조선 ‘기생문학’을 이끌었던 쌍벽으로 손꼽힌다. 37세에 오절했지만 정인이었던 유희경을 생각하며 지은 ‘이화우 흠뻑릴 제’는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린 절정이다.

문학관의 첫 인상은 학교 느낌이다. 한편으로는 오래된 공공기관의 관사 같기도 했다. 70-80년대 어느 한때로 흘러들어온 분위기가. 이곳은 원래 도지사 공관이었고이다. 이후 전북외국인 학교로 사용을 하다가 2012년부터 문학관으로 개조해 운영되고 있다. 다음은 문학관 안내문이다. “전시관은 대통령 지방 순회 시 영빈관으로 활용

아울러 문학관 활성화를 위해 창작과 삶의 공간, 지역사회 교육의 장, 주민참여의 공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학관이 문인들의 공간이 아닌 주민들 여가, 정서적 힐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얘기다. 문학관 상설 전시공간은 크게 세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고전문학의 향기, 일제 암흑기의 숨결, 새천년의 해오름이 그것이다.

새천년의 해오름 공간에서는 해방이후부터 현대에 이르는 문인들의 면면을 볼 수 있다. 박병순, 이철균, 정렬, 권일승, 하희주, 조두현, 이정환, 박정만, 최진성, 이광용, 조병희, 최명희 등이다. 이들이 있었기에 전북의 문학이 풍성해졌다. 문향 전북의 내일이 기대되는 것도 이들 앞선 작가들의 발자취 때문이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학관의 첫 인상은 학교 느낌이다. 한편으로는 오래된 공공기관의 관사 같기도 했다. 70-80년대 어느 한때로 흘러들어온 분위기가. 이곳은 원래 도지사 공관이었고이다. 이후 전북외국인 학교로 사용을 하다가 2012년부터 문학관으로 개조해 운영되고 있다. 다음은 문학관 안내문이다. “전시관은 대통령 지방 순회 시 영빈관으로 활용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국제보청기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수상 혁신상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부문] 수상